

# 밥상머리서 거듭된 인류 진화의 역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사피엔스의 식탁**  
 문갑순 지음

‘식품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외시되고 있다.’ 양철복의 작가 커트 그라스의 말이다. 커트 그라스는 작가적 통찰력으로 음식의 문화 인류학적 가치를 간파했다. 세계적인 석학 버클리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총, 균, 쇠’는 무기와 병균, 곰속이 문명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추적한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역마다 문명의 발달이 다른 것은 총, 균, 쇠의 영향도 있지만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다. 문명의 수수께끼를 환경과 결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지만, 그 이전에는 상당부분 식품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인류는 지금껏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 풍요의 시대를 열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초기 호모종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까? 그 진화의 연결 고리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식품’이라고 답하는 이가 있다. 인제대 바이오식품과학부 문갑순 교수가 펴낸 ‘사피엔스의 식탁’은 인류의 생명 유지와 문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9가지 식품을 조명한다.



문명 원동력 된 9가지 식품 조명  
 천대 받던 감자, 125개국 식량으로  
 황허·잉카 문명 이끈 ‘하얀 황금’ 소금

‘굶주림을 넘어 풍요의 시대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음식과 문명’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인류 진화의 원동력은 식품이었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음식 덕분에 우아한 종족이 됐다고도 덧붙인다. 생존과 번영에 적합한 식품을 선택해 재배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저자가 꼽은 9가지 식품은 3대작물(밀·쌀·옥수수), 감자, 콩, 소금, 생선, 향신료, 설탕, 기호식품(차·커피·초콜릿), 바나나다. 먼저, 밀·쌀·옥수수는 문명을 대표하는 3대 작물로 꼽는다. 동양에서는 쌀, 유럽에서는 밀, 남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가 대표 곡물로 선택됐으며 이를 주식으로 삼은 지역민의 삶도 영향을 받았다. 초창기 천대를 받다가 세계인의 식품으로 도약한 식품이 감자다.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인 감자는 못생긴 모양에다가 죽이나 먹이는 음식으로 오랫동안 취급돼왔다. 그러나 현재 125개국에서 연간 3억 톤 이상 생산돼 식량뿐 아니라 가공산업에까지 쓰일 정도로 용도가 넓다. 콩은 곡물의 최고 ‘파트너’로 사랑을 받아온 작물이다. 저자는 농경생활을 한 모든 문명의 발생지에서 곡류와 콩류가 함께 재배됐다고 본다. 특히 ‘에너지자원으로서의 곡류와 곡류의 단백질 부족을 보완해주는 콩류가 조합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소금은 ‘문명과 국가를 좌지우지한 하얀 황금’이라고 일컫는다. 모든 사람과 동물은 소금을 먹어야 하지만 문제는 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



▲‘사피엔스의 식탁’은 인류의 생명 유지와 문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밀·쌀·옥수수 등 9가지 식품을 조명한다.

교롭게도 고대 문명인 “중국의 황허문명과 중남미에서 높은 인구밀도를 자랑하며 찬란하게 발전했던 마야문명, 아즈텍문명, 잉카문명도 근처에 소금 공급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선은 초기인류에게는 고마운 먹을거리였다. 특히 인간의 뇌에는 다른 동물과 달리 고도불포화지방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저자는 인류초기부터 섭취한 해산물이 중요한 공급원이었다고 설명한다. 기호식품인 향신료는 필수품은 아니지만 식생활을 윤택하게 만든 식품이다. ‘미각의 비밀’을 쓴 존 매케이드는 농경으로 식생활이 단순해지자 향미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유의 맛과 향 덕분에 인류에게 선택된 순간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의미다. 이밖에 저자는 설탕을 통해서는 ‘달콤한 맛에 드러워진 제국주의와 노예사냥의 그림자’를 읽어내고 기호식품(차·커피·초콜릿)에 드러워진 ‘뜨겁고 달콤 씹쓸한’ 식품 쟁탈전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멸종에 직면한 과일 바나나를 떠올리며 단일종 재배가 인류의 식생활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도 추적한다. 책을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인류의 역사는 굶지않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다’

고. 이번 설 연휴에는 다양한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의 내력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21세기북스·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다니엘 웨그너·커트 그레이 지음  
 최호영 옮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는 ‘마음’에 관한 집필 작업을 구상하던 중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제자인 커트 그레이에게 책의 완성을 부탁했다. 2013년 웨그너가 숨질 때까지 함께 ‘마음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으로 완결되었다.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마음의 비밀’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책은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 지각이 왜 중요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두 저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문제는 곧 ‘지각’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물, 기계, 혼수상태의 환자, 신 같은 평범하지 않은 존재에 대한 마음 지각의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증명했다. <추수밭·1만8500원>



**가수는 입을 다무네**  
 정미경 지음

지난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많은 문학과 독자를 안타깝게 했던 작가 정미경. 제30회 이상문학상 수상작가이자 제26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할 만큼 독특한 소설세계를 개척해왔던 작家的 죽음은 그녀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적잖은 상실과 슬픔을 주었다. 작가의 유작 ‘가수는 입을 다무네’는 2014년 ‘세계의 문학’에 1년간 연재됐던 작품으로 타인의 삶, 타인의 상처와 묵묵히 함께 했던 작가의 삶을 반추할 수 있다. 수업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감독 노릇을 하는 이경에게, 한때 전설적인 록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였던 율은 최초의 피사체이다. 율에게는 많은 시간 그의 후원자가 되어 준 아내 여해와 그를 믿고 따른 젊은 뮤지션 호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위약적으로 굴며 지독한 외로움과 자기애를 동시에 느낀다. <민음사·1만3000원>



**안개의 나라**  
 김광규 지음

1975년 ‘문학과 지성’으로 시단에 나와 삶의 구체적 체험을 평이하고 친숙한 언어로 형상화해온 김광규 시인은 시력 40년을 넘는 다. 올해 희수를 맞아 펴낸 ‘안개의 나라’는 깊은 울림과 지적 통찰이 빛나는 시인의 시적 지향이 오히려 깃들어 있다. 이번 시선집에는 군부의 검열로 배포가 금지되었던 이듬해 발간됐던 첫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1979)에서부터 등단 40년을 맞은 해에 펴낸 ‘오른손이 아픈 날’(2016)까지 총 11권의 시집에서 시인이 자신한 200여 편이 묶였다. 그의 시의 특징은 투명한 이미지와 명징한 서술로 현실의 삶과 시대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데 있다. 시인은 폭압적 질서에 저항하고 삶의 모순과 허위를 짚어내지만, 그럼에도 차분하고 따스한 시선을 견지한다. <문학과지성사·2만1000원>



**걷기의 인문학**  
 리베카 솔닛 지음, 김정아 옮김

고층건물, 카페, 상가 등 오늘의 도시 거리는 복잡하다. 도시의 교외화와 복잡한 공간은 일상에서 걷기를 점점 몰아내고 있다. 걷기와 인문학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걸으면서 사유하고, 걸으면서 창조하고, 걸으면서 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평론가이자 작가인 리베카 솔닛은 ‘걷기의 인문학’에서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보편적인 행위인 걷기를 철학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걷기와 사유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철학자들을 소환한다. 보통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호출하지만 저자는 루소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그리스인들이 많이 걸은 것은 사실이고, 소아학과와 스토아학과와 이름이 걷기와 관련돼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반비·1만9500원>



**역사의 키워드 왕을 말하다**  
 강웅천 지음

역사 속의 왕은 다름아닌 권력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부자나 형제간에도 권력 싸움이 존재했을까. 지성학적으로 반도의 형국인 우리나라는 외부 세력들과도 끊임없이 힘을 겨뤄야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왕’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 민주주의 관점으로 재평가한 역사 속 왕들에 관한 책이 발간됐다. 역사 저술가인 강웅천 씨의 ‘역사의 키워드 왕을 말하다’는 단군왕검에서 군주의 탄생과 의미를 따져보는 것으로 시작해 백제 무령왕 편에서는 왕과 귀족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군주를 호출하고 있을까. 저자는 한국사 마지막 왕들이 외세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왕을 민중의 지배자보다 민족의 지도자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한겨레출판사·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설연휴패키지 | 2018. 2. 14 ~ 18 (5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위한 특별한 선물!

- 스탠다드룸 ₩ 60,000
- 조식별도 1인 ₩12,000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 1. 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